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친환경적 이사 지원’ 공공서비스 개시	파리
사회·복지	3	노인·장애인 대상 무료 식사제공 서비스 확대	샌프란시스코
	5	문화적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행사 참가혜택	토스카나
	7	실버서핑·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5개 노인정책	런던
행정·교육	9	취약계층 삶의 질 높여 위기대응능력 강화	파리
도시교통	11	사회적 약자 배려해 모든 기차역 리노베이션	토스카나



‘친환경적 이사 지원’ 공공서비스 개시

분리수거제도 정착·환경파괴 최소화 ‘두 토끼 잡기’

프랑스 파리市 / 환경·안전

- 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프랑스 파리市는 시민이 이사를 할 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쓰레기를 분리수거·재활용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버려지는 가구를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등 친환경적 이사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개시
- 배경
 - 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이사가 흔해 많은 쓰레기가 발생
 - 분리수거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홍보를 벌였지만 여전히 분리수거가 일반화되지 않음
 - 이사할 때 쓰지 않는 가구 등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
 - 주택임대제도에 월세만 있어 이사가 잦은 도시 특성상 많은 폐기물 발생
 - 친환경적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분리수거를 대행하는 적극적 지원 제도를 모색
 - 분리수거 제도 정착과 환경파괴 최소화가 주요 목적
 - 전용트럭으로 집기와 큰 가구 등을 수거해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거나 재활용
 - 몇 년 전부터 시행했지만, 올 9월부터 환경문제 대책 강화를 위해 분리수거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서비스로 발전
- 세부사항
 - 재활용 플랫폼(Recyclerie)
 - 이사할 때 버리는 물건을 가져다주면 재활용이 가능하게 가공해서 필요한 시민에게 나누어주는 플랫폼 서비스
 - 시내에 대형 플랫폼 8개와 소형 플랫폼 2개를 설치
 - 시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
 - 트리모빌(Trimobile) 서비스
 - 분리수거를 의미하는 ‘Tri’와 이동을 의미하는 ‘Mobile’의 합성어
 - 버릴 물건이 많은 개인(사업자 제외)을 위해 시가 직접 수거해주는 서비스
 - 수거한 물품과 가구는 재활용 플랫폼으로 보내 재활용

-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파리시 민원 앱 ‘우리 동네에서’(Dans Ma Rue)를 이용해 신청
 - 편리한 신청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버릴 가구의 종류, 예약 일시만 입력
 - 정해진 시간에 집 앞에 가구를 놓기만 하면 신청자가 없어도 알아서 수거
- 친환경적 이사 지원을 받은 시민은 파리시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 시민단체와 연계해 재활용 물품을 필요한 곳에 분배
 - ‘파리에서 다르게 이사하기’(Demenager Autrement a Paris)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시민단체 ‘카르통 플랭 75’(Carton Plein 75)와 협력
 - 재활용 물품·가구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체, 사회단체 등의 목록을 파리시에 제공하고 물품을 나눠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분리수거 문화 정착을 위한 시정부의 노력
 - 과거의 쓰레기 처리장을 개조한 ‘분리수거 공간’(Espace Tri)을 설치
 - 각 구의 골목마다 세밀하게 분류된 재활용장을 만들어 비닐, 종이, 음식물, 페트병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눠버릴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유리병 수집 기둥’(Colonnes a Verre)은 시 전체에 887개를 설치
 -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음장치가 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도 투입구를 배치
 -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텔레비전, 버스, 광고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재



[그림 1] 파리시 전체에 887개 설치되어 있는 ‘유리병 수집 기둥’

<https://www.paris.fr/actualites/les-3-reflexes-pour-demenager-eco-responsable-2821>

<https://www.paris.fr/parisdutri>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대상 무료 식사제공 서비스 확대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사회·복지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에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삭감되자, 시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NGO 단체와 협업하는 등 지역 차원(Local level)에서 관련 비용을 충당할 방안을 모색하여 서비스를 확대
- 개요
 - 식사제공 서비스는 식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
 - 시정부는 식사제공 서비스 외에도 음식재료를 커뮤니티 센터나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에도 예산을 배분
 - 관련 공공서비스 분야의 펀드를 지난 7년간 109% 이상 확보
 - 2016년 노인·장년서비스국(Department of Aging and Adult Service)의 커뮤니티 다이닝 프로그램(Community Dining Program)으로 200만 가정에 100만 끼 이상을 제공
 - 지속해서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장 중
- 주요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애인 대상 식사제공 서비스
 - 1) 커뮤니티 다이닝 프로그램: 노인정, 커뮤니티 센터 등에 제공되는 단체 식사
 - 2) CHAMPSS: 도시정부와 후원단체가 지정한 음식점에서 대상 노인에게 균형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 3) 응급 식사제공 프로그램(Emergency Meal Program): 연방정부 기준의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지급되는 식사서비스
 - 4) 음식재료 제공 프로그램(Food Pantry Program):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주일 또는 2개월 단위로 음식재료를 제공

-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시정부가 단독으로 광범위한 도시에 식사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한계는 여러 NGO 단체와의 협력으로 극복
 - ‘밀스 온 휠스’(Meals on Wheels)를 필두로 5개 단체가 참여
 - ‘라티노 센터 샌프란시스코’(Centro Latino de San Francisco), ‘유대인 가정 어린이 서비스’(Jewish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러시아-아메리카 커뮤니티 서비스’(Russ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노인 자조회’(Self-Help for the Elderly) 등
- 더 많은 노인·장애인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 현재는 지급능력이 있고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료 음식재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저소득층 식사제공 서비스에 투입하는 중
 -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구책을 개발 중

<http://sfmayor.org/article/mayor-lee-announces-funding-support-nutrition-programs>

<http://www.sfhsa.org/136.htm>

<https://ir2.sfgetcare.com>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문화적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행사 참가혜택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사회·복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10월 한 달간 주 내 모든 도서관에서 ‘어디라고? 도서관!’(Ma dove? In Biblioteca)이라는 행사를 개최해 문화적 소외 계층(난민·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개최
- 배경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적 문화정책은 토스카나주의 일상적 이슈
 - 문화예술, 여행, 사회서비스, 교육시설 등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증시
 - 최근 유입된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 발생
 -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와 정책의 필요성 제기
 - ‘정보와 지식 문화의 쉬운 접근’이라는 테마로 행사를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박물관, 도서관, 공연 등) 점검의 기회로 활용
- 주요 내용
 - 1. 장애인을 위한 정책 콘퍼런스
 - 장애인의 문화 권리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문화정책 토론
 - 문화행사, 여행, 교육, 노동, 스포츠 등 총 13개 분야의 토론을 이틀간 진행
 - 분야별 장애인 배려 정책의 실행 현황과 앞으로의 보완책을 논의
 - 휠체어 하키, 휠체어 농구, 앉아서 하는 배구 등 장애인 스포츠 경기 진행
 - 2. 문화 프로그램 이용 설명회
 - 정보 부족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는 난민·노인·장애인 등이 대상
 -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이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화서비스 도우미와 평생 무료 정책을 안내
 - 3. ‘도서관의 날’(Biblio Pride) 행사
 - 9월 30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토스카나주, 이탈리아 작가·편집자 협회, 공립 도서관이 함께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 토스카나주의 한 도시를 선정해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 올해의 도시는 피스토이아(Pistoia)로 선정했고, 평소 도서관 활동이 어려운 환자와 수감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사진 공모전 개최
 - ‘한 명도 빠짐없이’(Nessuno Esclusivo)라는 주제로 도서관 경험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고, 수상자에게는 토스카나 도서관이 마련한 책 세트 등을 제공
- 4. ‘이지리딩’(EasyReading) 워크숍
 - 시각 장애인과 언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독서 워크숍
 - 특별 독서 자료와 도우미 프로그램의 이용법을 알려주고 1년 365일 이용가능함을 공지
- 5.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창의 워크숍
 - 매주 금요일 5~10세의 이탈리아, 이민자, 난민, 외국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애니메이션과 문학 작품을 활용해 인종의 다양성을 이해시키고자 함
- 6. 노인을 위한 독서 모임
 - 매주 월요일 노인들에게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을 지속
- 7. 난민 토크쇼
 - 난민과 주민 간의 소통과 사회적 결합을 위해 난민이 게스트로 참여하는 토크쇼 개최
 - 유입된 난민이 이탈리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으로 이탈리아어와 역사와 전통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http://www.regione.toscana.it/-/ma-dove-in-bibliote-1>

<http://www.toscana-notizie.it/-/ma-dove-in-biblioteca-dal-1-al-31-ottobre>

<http://www.aib.it/attivita/bibliopride/bibliopride2017/>

<http://www.rbbg.it/library/PARRE/cal/biblio-pride-2017/>

<https://www.ilgiunco.net/2017/09/30/ma-dove-in-biblioteca-torna-la-campagna-che-invita-alla-lettura/>

<http://blog.giovanisi.it/2017/10/04/ma-dove-in-biblioteca-un-mese-di-iniziative-per-una-cultura-accessibile/>

<http://open.toscana.it/web/toscana-accessibile/conferenza/programma>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실버서핑·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5개 노인정책

영국 런던市 / 사회·복지

- 영국 런던市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년층이 여전히 도시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노인의 도시생활에 많은 장애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실버서핑 교육 등 노인 친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

- 배경

- 런던의 노년층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도시를 안전하게 누리고 싶어 하지만 노인의 도시생활에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런던을 노인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노인정책을 제시

- 주요 내용

- 1. 도시 내 이동의 자유(Freedom to Roam)
 - 칸 시장은 60세 이상의 런던시민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덤 패스’(Freedom Pass) 카드 서비스의 유지를 약속
 - 무료 승차에 대한 반대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도시 내 이동의 경제적 자유는 수백만 런던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고 판단



[그림 1] '프리덤 패스' 카드 이미지

- 2.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Armchair Olympics)
 -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신체 상황에 적합한 운동방법이나 운동환경을 찾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 '겟 무빙'(Get Moving) 프로그램으로 노년층의 운동을 지원
 - 간단한 의자를 이용한 운동(Armchair Olympics), 댄스, 요가,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매주 무료로 제공

- 3. 실버서핑(Silver Surfing)
 -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시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미-와이파이’(Mi-Wifi) 프로젝트를 론칭
 - 런던 내 도서관에 노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도서관 직원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교육
 - 인터넷을 배우고 활용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4. 노인 친화 도시환경(Age-friendly Streets)
 - 칸 시장은 최근 제시된 도시개발 계획인 ‘런던 플랜’(London Plan)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세계 선도적 기준(World-leading Standards)에 맞춰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
 - 공중 화장실 증설,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한 도보환경 등 세심한 도시설계
- 5. 노인 봉사자 프로그램(Older Volunteers)
 - 은퇴 이후 많은 변화를 겪는 노년층에게 자원봉사 활동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
 -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12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 지원
 -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성소수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도 포함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five-fantastic-things-older-londoners>

<https://tfl.gov.uk/fares-and-payments/adult-discounts-and-concessions/freedom-pass#on-this-page-0>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행재정·교육

취약계층 삶의 질 높여 위기대응능력 강화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테러 위협 등 세계적인 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대를 강화해 도시의 위기대응능력, 즉 회복탄력성(résilience)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6가지 목표와 35가지 실천방안을 담은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La stratégie de résilience de Paris)을 발표
- 배경
 - 세계적으로 환경변화, 시민사회의 연대 파괴, 테러의 확산 등 도시의 위기 등장
 - 2017년 9월 시의회는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제안한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을 채택
 - 자연재해나 테러와 같은 위기상황에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의 연대가 강고해야 도시가 위기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
 - 또한, 이러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Ville) 단위의 지역적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
 - 서울시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파리시가 위기대응능력의 핵심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는 점
 - 위기는 외재적 요소가 아닌 내재적 요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강제적 해결방식보다 지역사회 연대의 재건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철학
- ‘파리시 회복탄력성 전략’의 6가지 목표
 - 1.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응집력 강화
 - 불평등은 사회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2. 기후변화와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
 - 지난 9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
 - 3. 대기오염 해소
 - 2015년 파리기후협약(COP21)이 상징하듯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는 파리시의 최대 관심사

- 4. 센(Seine)강(江)의 범람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
 -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강인 센강 문제의 해결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기 위함
- 5.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계층·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 감소
 - 2015년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바타클랑 테러’ 모두 계층·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갈등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다수
 - 특히 빈민지역 이민 2세대에게 많은 관심이 요구
- 6. 지역 거버넌스 개선
 - 경제, 사회, 교육 관련 기관(학교, 사회단체, 기업 등)과 일반 시민을 집합적으로 잘 조직하여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개선
 - 시 운영에 시민참여, 지역 축제, 공공공간 확장, 재화와 서비스의 사회적 교류 강화 등
 - 특히 행정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35개 실천방안의 주요사례
 - 소방청, 시민보호연합, 시민연대조직, 경시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상황에 시 전체가 통합적·조직적으로 대응
 - 일상적이고 즉흥적인 지역 시민의 연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시민과 시민, 시민과 지역사회단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형성
 -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 녹화사업 강화
 -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 공간(주거공간, 공공공간, 공원 등)의 청결도,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주변환경 적응능력 등을 향상
 - 연구기관과 협력해 시민에게 정보 공유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설립
 - 위기상황 때 시민의 역동적 움직임을 반영해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지도를 제작
 - 시 예산의 최소 10%를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사용
 - 파리지 주변 지역과 위기 관련 지역협력조약 체결

<https://www.paris.fr/actualites/transformer-paris-pour-renforcer-sa-resilience-5126>

<https://api-site-cdn.paris.fr/images/95183>

<https://api-site-cdn.paris.fr/images/95335>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사회적 약자 배려해 모든 기차역 리노베이션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도시교통

-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까지 고려해 2020년까지 지역 내 모든 기차역을 리노베이션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2018년까지 8,500만 유로(1,132억 원)를 투자해 34개 기차역을 개선할 계획
- 배경
 - 관광객을 위한 토스카나 기차역의 서비스 개선요구가 매년 증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논의와 맞물려 모든 기차역의 리노베이션을 결정
- 주요 내용
 - 토스카나주 교통부와 이탈리아 철도 네트워크(RFI: Rete Ferroviaria Italiana)의 협업으로 진행
 - 2020년까지 토스카나의 모든 기차역을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할 예정
 - 2017~2018년에 8,500만 유로를 투자해 34개 기차역을 우선 리노베이션
 - 2017년: 피렌체 등 대도시와 몬테바르키 등 소도시를 조합한 22개 기차역
 - 2018년: 리보르노, 프라토 등 해안도시와 내륙도시를 조합한 12개 기차역
 - 리노베이션의 주요 내용
 - 플랫폼 높이를 55cm(새로운 유럽연합 규정)로 올려 탑승 편의 제공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확충과 시각·음향 안내 시설 개선
 - 조명 시스템을 LED로 교체해 시인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효율 증가
 - 밤 시간대 여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http://www.toscana-notizie.it/-/ferrovie-85-milioni-per-rinnovare-34-stazioni-entro-il-2018>

<http://open.toscana.it/web/toscana-accessibile/-/ferrovie-85-milioni-per-rinnovare-34-stazioni-entro-il-2018>

<http://www.toscana24.ilsole24ore.com/art/oggi/2017-05-31/ferrovie-milioni-rinnovare-stazioni-175800.php?uuid=gSLA92EoKC>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편집출간팀 담당자(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뮌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